

# 종합불교복지타운 건립 본격화

## 사회복지법인 내원 '마하재활의료원' 기공 명상·참선 프로그램 도입 내년 10월 완공

**☞** 5만여명의 부지에 중증장애 인요양시설, 장애인 재활의료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펼치게 될 종합불교복지타운이 거제시에 건립추진 중이다.

사회복지법인 내원(이사장 정련)은 11월 26일 거제시 동부면에서 지역사회의료재활시설인 '마하재활의료원' 기공식을 갖고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본격화했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내원이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종합불교복지타운 건립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불교계 최초의 재활의료시설인 마하재활의료원은 서울 국립재활원, 경기도 삼육재활원에 버금가는 규모와 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재활 기구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자부담 15억을 감내할 정도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가 높다.

2006년 10월 완공 예정인 마하재활의료원은 1천여 평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60병상의 입원실과 진료실, 운동치료실, 임상심리검사실, 운동물리치료실, 산책로, 각종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장애인의 재활을 돕게 된다. 특히 불교적 가르침이 녹아 있는 명상, 참선 프로그램을 도입, 심신의 조화로운 재활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재활의 신개념을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다.

사회복지법인 내원이 거제시 동부면에 동지를 쓴 것은 지난 2000년, 미인가시설이던 '차차마을'을 인수해 2004년 최선시



마하재활의료원은 11월 26일 기공식을 계기로 종합불교복지타운 건립을 본격화했다.

설을 갖춘 '반야원'으로 재건립했다. 내원 이사장 정련 스님은 "한때 마을 주민들의 반대도 심했지만 장애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며 "복지타운 건립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글·사진/거제=천미희 기자

## 사단법인 '동련' 불교구연동화대회 성료

### 상명 스님·장초희씨 공동 대상

사단법인 동련으로 새롭게 출발한 대한 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26, 27일 경북 청소년수련원에서 제40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전국의 어린이법회 지도자 3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의 하이라이트는 27일 열린 제1회 불교동화구연대회. 첫 불교구연동화대회임에도 78명이 예선을 거쳤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이번 대회 본선에는 상명 스님을 포함 총 8명이 참가해 관심을 모았다. 경전 속 이야기와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로 한 창작 동화를 구연한 참가자들 중 '관세음보살님의 선물'이란 동화를 구연한 장초희씨와 '모두 함께 아끼새를 구했다'를 구연한 상명 스



님이 각각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공동 대상을 차지했다.

한편 사단법인 동련은 제1회 불교동화구연대회를 계기로 불교구연동화모임을 결성하고 구연 동화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대한불교교사대학 불교구연자격반 지도교사 박서영씨, 최숙희씨를 비롯 제1회 구연동화 대회 본선 참가자 8명 전원이 회원으로 참가했다.

천미희 기자

### 해인사 골프장 재추진 방지 설명회

가야산 국립 공원내 골프장 건설 재추진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12월 1일 덕곡면 노인회관 앞에서 열렸다.

지난 7월 일부의지인사에 의한 부지 매입과 주민 설득 등 골프장 건설 재추진 움직임이 포착되자 골프장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들어간 덕곡면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다졌다.

현재 해인골프장 건설 재추진의 정황은 보이지 않지만 지난 여름부터 일고 있는 소문은 대한 현 상황을 모든 면민에게 상세히 알려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 현재 마을 주민 900여 세대의 반대서명도 모두 받아 놓은 상태다.

덕곡면 지역기관단체장과 지역 면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설명회는 골프장 반대추진위원회 여보연 위원장과 김병환 총무의 정황 설명과 골프장 건설 반대 구호 제창 등 면민의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진행됐다.

### '맑고향기롭게' 신년사업 발표

불교시민단체인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본부장 고경순)이 11월 25일 법당에서 '2005년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만남의 밤'을 갖고 2006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에는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치중했다면 2006년에는 마음을 맑고향기롭게 하는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정 스님이 선정한 '맑고향기로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책읽기 모임'과 '불교공부모임'을 결성할 계획이다. 또 요가 명상 퀴트 등 다양한 문화교좌를 개최해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자기개발의 기회를 주고, 일반인들에게는 문화교좌를 통해 자원봉사자 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11월 11일은 농민의 날을 기려 국적불명의 뽕배로 대신 우리 쌀과 농산물을 주고받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사업도 펼쳐나간다.

### 범우사 15회 백고좌법회 회향

대구 수성구 파동 범우사(주지 실상)는 11월 30일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병행하고 제15회 백고좌법회를 회향했다.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종진 스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다섯 가지 기본조건인 신(信), 애(愛), 경(敬), 화(和), 인(忍)"이라고 강조하고 "힘든 일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씨를 뿌리는 작업으로 알라"고 법문했다.

지난 8월 20일 일제때 제15회 백고좌 법회는 매일 200여명의 불자들이 꾸준한 동참하는 가운데 100일간 100명의 대덕 스님들이 초창회 회향경과 법회경 법석을 열었다.

### '공통세계엑스포' 성공기원

2006년 경남 고성 '공통세계엑스포' 성공기원 대법회가 고성군사암연합회(회장 법진) 주최로 11월 27일 고성종합운동장에서 2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통도사 방장 초우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민국의 공통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동서고금의 일을 한 생각 속에 알 수 있다"며 공통엑스포 개최로 나라와 가정의 평안을 발원했다.

이에 앞서 사암련 회장 법진 스님은 "공통엑스포의 성공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온 인류가 반성해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봉행사를 낭독했다.

이날 법회에는 고성군사암련 소속 70여 개 사찰 사부대중 2000여명과 이화령 고성군수, 김명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호 고성군의회 의장, 박정용 사암련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다.

조용수 기자

## "실버와 그린의 행복한 만남"

###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부산여대, 독거노인 초청 파티



부산여자대학 호텔푸드코디네이터와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를 만들고 있다.

**☞** 11월 28일 부산여자대학 관 광교육센터 연회실에서 홀로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생기발랄한 여대생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만남이 이뤄진 '실버와 그린의 아주 특별한 가든파티'가 그것.

사회복지법인 불교도(대표이사 해충)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소장 김영권)와 부산여자대학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파티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 55명이 초대됐다. 어르

신들을 위한 음식준비는 부산여자대학 호텔푸드코디네이터와 학생들이 맡았다. 사회복지와 차문화복지와 학생들과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자들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거들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음식 나르기를 마친 호텔푸드코디네이터와 1학년 백선애 학생은 "흡족해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광주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을 해드릴 수 있어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날 어르신들과 함께 특별초대 된 손님도 많았다. 부산여자대학 경정삼 기획실장, 박홍재 국회의원, 부산여자대학 원기연 사회복지학과장 등이 함께 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와 다과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불국토 대표이사 해충 스님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세대간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의성 고운사 직원연합연수

의성 고운사(주지 해승)는 산하 복지기관 직원들의 연합연수를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고운사에서 실시했다.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의성군노인복지회관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수는 사찰예절 교육과 예불, 사경, 발우공양, 법문, 차담 등의 일정으로 고운사에서 진행됐고, 12일 의성군 구봉공원에서 체육대회를 끝으로 회향했다.

의성 고운사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까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 김장김치 나누며 공생 실천

###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쪽방거주 세대에 전달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거) 지하강당에서 50여 신도들이 김장법회에 몰입했다(사진). 신도들이 이룬 새벽부터 출동해 이틀간 꼬박 담근 김치는 모두 3000포기다.

700개의 작은 박스에 개별 포장된 김

장 김치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구 쪽방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대구시내 쪽방 거주 세대에 모두 전달하고, 일부는 노숙자를 위해 무료급식소에 전달됐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2000년부터 매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왔다. 지원장 혜거 스님은 "어려운 이들을 단순히 물질적으로 돕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스승으로 깨어나 자생적으로 힘을 키우고 살아가길 수 있도록 마음을 내 활동함으로써 돌아온 도리를 체험하고 인과를 배워가는 마음공부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 통도사 삼삼조사 추모제 봉행

**☞** 부처님으로부터 육조 혜능까지 발맥을 이어온 33 조사를 추모하고 뜻을 기리는 삼삼조사 추모제가 통도사 극락암(주지 명정) 조사전에서 봉행됐다.

통도사 방장 초우 스님, 통도사 부주지 태봉 스님, 영축총림 전제사 해남 스님, 경봉문도회 회장 원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삼삼조사 추모제에서 지안 스님은 "가섭존자부터 육조 혜능조사까지

33조사를 기리는 이 추모제는 경봉 스님 생전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극락암에서 지내는 행사"라며 "불조부터 33 조사로 이어진 불법의 근본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여 기필코 부처님 은혜를 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삼조사 추모제가 봉행된 극락암 조사전에는 부처님을 비롯 조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극락암은 내년부터 삼삼조사 추모제의 규모를 보다 키워, 앞서간 선지식들의 뜻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천미희 기자

**2006학년도 특차모집**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edu.cn

**2006년 의료시장 개방 / 한국 개원 가능**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선 80명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 3.5 이상)	· 여권용 사진 10매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계약공장, 교육병원 12, 계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5년 12월 20일까지

**5. 문의처**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한국총장 손혜인